

“이대로 살다 가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100원회, 청소년 장학금 전달

100원회(회장 김희만)는 10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창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자녀, 모범청소년 등 31명에게 16번째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도 각 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한상수(21·조선대 3년) 등 대학생 12명에게 각 30만원씩, 노국성(19·제일고 3년) 등 중·고등학생 19명에게 20만원씩 모두 31명에게 740만원의 장학금을 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수피아여고 흠커밍데이 행사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교장 박정권) 흠커밍데이 행사가 최근 모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1995년 졸업한 43기 졸업생들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기념예배에 이어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자랑스런 수피아인상 시상과 함께 학교 발전기금, 재학생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스타강사 권연철씨의 사회로 진행된 3부 행사에서는 졸업생들의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다.

이보람기자 boram@

진정한 행복 모른채 시키는 것만 하는 사회 어른들 먼저 성장하면 아이들도 달라질 것

“많은 학생은 의사나 판사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게 어떤 직업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엄마가 시켜서 그런 목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고, 권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자녀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지, 그 일을 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생각해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이지성(44)씨가 최근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을 찾았다. ‘인문학으로 Think하라’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는 학생과 공직자 등 500여 명이 몰렸다. 그는 지난 2000년대부터 초등학교 교사 생

활을 시작했지만 ‘꿈꾸는 다락방’ 시리즈와 ‘생각하는 인문학’ 등 30여 권 책을 펴내며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동서양 수많은 고전을 지난 10여 년간 섭렵하고, 현재는 알기 쉬운 인문학 강연을 펼치며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많은 인문학 강연이 넘쳐나지만 정작 인문학에 대한 정 의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

결국 인문학의 부재가 공교육 위기로 이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년 학생 수백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친구를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로 만드는 공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수십만 원을 주고 산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개발한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고,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먼저 만들지 못했는지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불투명한 미래로 힘들어 하는 것은 청년과 중장년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 대중에 만들어 낸 현상이 인문학 열풍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어 “이대로 살다가 눈을 감아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부 지식인들만의 인문학이 아닌 주부나 학생 같은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이 인문학을 시작하고자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문학을 통해 현대인들이 처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역설했다.

“주말 내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아버지,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하는 어머니. 이러한 가정에서 사람과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가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이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때 아이들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도 한결을 나아갈 것입니다.” /담양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서구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서구자율방범대(대장 박건태)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일 송학초등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려 회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송원고, 전문가 초청 효 교육



광주 송원고등학교(교장 조명환)는 지난 8일 학교 체육관에서 전남대 평생교육원 서상일 교수를 초청해 ‘효행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을 주제로 효 교육을 실시했다.

송원고 제공

광주도시공사, 어르신 점심식사 제공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웅준)는 최근 어버이날을 맞아 월드컴퓨터장 주차장에서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100여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 의약 단체, U대회 입장권 구매 약정



유정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은 최근 시청에서 광주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광주 의약 5단체와 유대회 입장권 단체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네 바퀴에 후 신고 달린다

한양, 자비신행회에 나눔 빨래차 기증



한양(대표이사 한동영)이 지난 8일 사회봉사단체인 광주시 동구(사)자비신행회에 ‘나눔 빨래차’를 기증했다.

“나눔 빨래차”는 이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찾아가 이불과 옷 등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매주 4회 이상 연간 8000여 가구에 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광주에 기반을 둔 보성건설이 모기업인 중견건설기업 한양은 지난 3월부터 자비신행회와 공동기탁출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꾸준히 가져왔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가치와 기초복지 서비스에 중심을 둔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하



기로 했다.

자비신행회는 노인복지사업과 호스피스사업, 이동복지사업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조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간순수자원 봉사단체다.

한양 관계자는 “나눔 빨래차 기증식을 시작으로 향후 기업의 모태인 광주·전남지역에 자원봉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

가수 현숙 순창군에 목욕차

효녀가수로 유명한 현숙 씨가 최근 순창군에 이동방문 목욕차량을 기증했다. 순창군청 광장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가수 현숙 씨와 황숙주(맨 오른쪽) 군수, 순창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증식을 축하했다.

현숙 씨는 이날 기증식을 마치고 순창을 복심리로 이동해 실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

욕차도 실시했다. 이번에 기증한 이동방문 목욕차량은 장기요양등급(1~5급)을 받은 자를 제외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거동 불편자 중 음연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8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현숙 씨는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순창군에 이동방문 목욕차량을 기증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이화회(회장 이승만) 월례회의=12일(화) 오후 6시 30분 도지연 회의실 3층 062-225-5636.

▲문화 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재균) 갑파(청주) 을파조(김제) 선조 제단 참배=17일(일) 오전 7시 광주시 남구 진동동 가족의원앞 출발 010-3051-2415.

알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인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혹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헌신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

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호시랑넷 봉사단=뜸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문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

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이명재씨 별세 윤성도·성민·성희·성연씨 모친상=발인 1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이명재씨 별세 윤성도·성민·성희·성연씨 모친상=발인 1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이종만씨 별세 천영(새날학교 교장)·원영·오순·기순씨 부친상=발인 12일(화) 스키장레식장(광산구 수완동 213-6) 062-951-1004.

<p>謹 상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p>			
<p>201호 故김선희 님 (남/88세)</p> <p>子/子婦: 김일규/김은경, 김우영/박은희, 김대현/김은경 女/婿: 김옥린/김영민, 김남이, 김애경/조기환</p> <p>발 인: 5월 12일 장 지: 화순 송암 선영 • 연락처: 227-4381</p>	<p>401호 故정수하 님 (남/60세)</p> <p>子/子婦: 정여상/김경미 女/婿: 정혜련/김경민 未亡人: 김순덕</p> <p>발 인: 5월 11일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3</p>		
<p>402호 故이광원 님 (남/60세)</p> <p>女: 이광희, 이민희, 이은혜 未亡人: 조미영</p> <p>발 인: 5월 11일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14</p>	<p>101호 故최현순 님 (여/87세)</p> <p>子/子婦: 정우식/강순순, 정민석/이영희 女/婿: 정미희/김진섭</p> <p>발 인: 5월 11일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p>		
<p>102호 故이현진 님 (남/71세)</p> <p>子/子婦: 이기준/정선희, 이기영/김민숙, 이정호 女/婿: 이현아/차석진 未亡人: 김순희</p> <p>발 인: 5월 12일 • 장 지: 동면 선영 • 연락처: 227-4386</p>			
<p>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p>			